

토론문: 콜린 플린트,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지정학의 이해를 위한 기본틀」에 대하여

토론자: 진송옥

1. 들어가며

발제문은 플린트가 지정학을 국제정치학의 하위 분야가 아니라 인문지리학의 핵심 문제로 재정위(再定位)한 지점을 정확히 포착했다. 특히 고정된 배경으로 여겨지던 ‘장소’를 정치·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자 무대로 재정의하고, ‘규모’를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들이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단위로 읽어낸 요약은 1 장의 핵심을 충실히 짚어냈다. 나아가 발제자는 이 이론적 틀을 일제강점기 철도라는 구체적 역사지리에 적용함으로써, 추상적 개념을 실증 사례로 시험하려는 생산적 시도를 보여주었다. 본 토론자는 이러한 발제의 성취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아래 몇 가지 논점을 통해 논의를 한층 심화하고자 한다.

2. 논점 1: 애그뉴와 매시는 나란히 놓일 수 있는가

발제문은 애그뉴(Agnew)의 장소 삼분법(location · locale · sense of place)과 매시(Doreen Massey)의 관계적 장소론을 순차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두 이론은 단순히 보완적이라기보다 오히려 긴장 관계에 있다. 애그뉴의 틀은 여전히 영역적으로 경계 지어진(bounded) 장소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반면, 매시는 바로 그러한 경계적·본질주의적 장소 관념을 비판하며 ‘장소에 대한 전 지구적 감각(a global sense of place)’과 ‘권력 기하학(power-geometry)’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매시에게 장소감각이란 안으로 닫힌 정체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적 관계들이 특정 지점에서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열린 결절(node)에 가깝다.

질문: 발제자는 두 이론을 함께 채택했는데, 철도 사례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장소감각이 철저히 파괴되었다’고 서술한 대목은 오히려 본질주의적인 장소 관념에 기대고 있지 않은가? 만약 매시의 관계적 관점을 일관되게 취한다면, 식민지 철도는 장소를 파괴했다기보다 장소를 구성하는 권력 기하학 자체를 재편한 것, 즉 ‘누가 이동하고 누가 이동당하는가’를 다시 배치한 것으로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

3. 논점 2 — 저항 서사와 식민지 근대성

발제문의 결론부는 구조의 압도적 제약 속에서도 ‘구조의 틈새’를 활용한 민중의 능동성을 강조하며, 통제의 인프라였던 철도가 항일 연락망이자 이주의 궤적이 되었음을 지적했다. 균형 잡힌 시각이다. 다만 ‘수탈-저항’의 이분법은 최근 식민지 근대성 연구와 ‘식민지 회색지대’

논의가 문제 삼아 온 지점이기도 하다. 철도를 매개로 한 조선인의 실천에는 저항뿐 아니라 순응·활용·생계·협력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다.

질문: 플린트의 다층적 행위자 개념(개인·가구·기업·노동조합 등)을 좀 더 밀고 나가면, 철도역 상권에서 이익을 얻은 조선인 상인이나 철도 노동자처럼 ‘저항’으로 환원되지 않는 행위자들도 시야에 들어온다. 발제자의 비판지정학적 결론은 이러한 회색지대의 행위자들을 어떻게 포괄할 수 있는가?

4. 나가며

발제문은 1 장의 이론적 골격을 충실히 요약하고 이를 한반도라는 구체적 사례로 확장한 훌륭한 시도였다. 토론문의 플린트가 제안한 ‘고전 지정학과 비판 지정학 사이의 끊임없는 월경’을 발제문이 마련해 준 사례 위에서 함께 밀고 나가보려는 제안을 시도해 보았다. 특히 매시의 관계적 장소론과 식민지 근대성 논의를 경유할 때, 발제문이 그려 보인 식민지 공간의 지도는 한층 더 입체적으로 다시 그려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